

# 옛 대한방직 석면 건축물 철거 추진

### 전주시, 석면 등 유해물질 사용된 폐공장 건물 철거 위해 자광에 요청·논의기로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옛 대한방직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안을 토지 소유자인 (주)자광과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방직 부지 전경

시는 지난 2018년 공장가동이 중단된 후 옛 대한방직 폐건물이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및 석면 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자광에 폐공장 건축물 철거를 요청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7월 4일 취임 후 첫 전체 간부회의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석면이 많은 대한방직 폐공장을 철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축물 내 석면 철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시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철거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주)자광 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석면 등 유해물질이 사용된 12개동(22,577㎡)을 포함한 폐공장 21개동(6만1,135㎡)으로, 시는 주변 잡목 제거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철거 여부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인 (주)자광은 올 연말까지 폐공장 철거를 위한 현지조사와 실시계획을 완료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공장 철거공사 허가를 득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공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중 부지 둘레 전 구간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가설울타리의 경우에도 주변 경관 개선과 시정홍보 등을 위해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벽화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폐공장 철거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전주시, 8일까지 120명

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5일부터 오는 8일까지 2022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120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18~65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자다.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연령 기준이 만18~39세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배제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1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오는 10

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상수도 수용가 업종별 코드 DB구축 등 DB 구축사업 △도시관 자료실 활성화 지원사업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환경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 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면서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우범기 시장 "전주, 전국 최고 치매안심 도시로"

### 치매 환자·가족 지원 예산 대폭 증액 사업 추진... 모든 시민 보건소서 무료 검진 가능

우범기 시장(사진)이 전주시를 전국 제일의 치매 안심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치매검진 대상 확대, 진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범기 시장

또한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전주 지역 37개 기관에서도 만 60세 이상 시민은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치매 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시민은 진료비와 약제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

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이며, 내년부터 예산 확보를 통해 센터에 등록된 모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미끄럼방지매트, 기저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치매 걱정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안심마을도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평화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치매어르신이 살던 동네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고 있으며 덕진구 진북동 등

에 추가 지정을 통한 확대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지강화교실 확대 운영, 치매 교육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지재활교구 대여사업 실시, 인지재활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무상 배부 등도 진행된다.

전주시는 시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설치 기준이 충족되도록 지원하고, 2023년 시립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의 집중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 예방부터 치료 및 관리까지 촘촘한 치매안심망을 구축해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전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8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설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여부 △유불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정적 표시, 단속 거부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태훈 시 농업정책과장은 "판매자들에게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해 주시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전주중앙상가 현장 지도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일 관내 전통시장인 전주중앙상가를 방문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성수품 구매를 위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화재 취약 요소를 확인하고, 시장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김 서장은 현장에서 △상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이행 실태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체계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화재 시 대피·피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서장은 관계자들에게 "추석을 앞두고 많은 상품의 진열과 방문객의 증가로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추



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설공단, 추석 연휴 기간 장사시설 전면 개방

전주시설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봉안당과 봉안원 등 장사시설을 모두 개방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명절 기간에 장사시설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2년 반만이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명절 연휴 기간 중 봉안시설을 폐쇄했다.

연휴 전후로 사전예약을 받아 하루 500명 이내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이 같은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성묘객들은 자유롭게 장

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소한의 방역 조치로 제례실 이용과 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제한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화장시설인 전주승화원은 추석 당일인 10일 하루만 휴장한다.

구대식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장사시설 개방으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추모객들이 우리 장사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장수 JANGSU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www.jangsumall.com

NAVER 장수몰

장수몰 JANGSU MALL